

협회소식

특수검진기관 실사

○대한산업보건협회특수검진기술협의회에서 전국 39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해 86년도 특수검진내용을 실사하기 위해 11.24-11.29 까지 7개 실사반을 편성, 실태조사 하였다.

○금년도 실사 중점내용은 지속적인 근로자건강관리제도 확립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책임검진제 실시여부와 사업주나 근로자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해소 노력, 기타 관내 특수검진 사업장누락 여부등에 관해 집

중과약 하였다.

○이 밖에도 전년도 실사지적사항 개선여부와 특히 금년도 신규지정된 특수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인력, 시설, 기장비에 대한 대한 확인점검이 실시되었다.

○협의회는 기관별 실사내용을 종합, 86.12.12 종합평가회의를 개최하고 87년도 특수검진기관운영 방향과 함께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을 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창립기념일 공로표창 수여

○협회는 지난 11.22 창립23주년을 맞아 그간 협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을 엄선하여 협회장 공로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금년 포상대상자에는 7명의 직원이 외에 마산센타 관리의사 김도천, 부산센타 관리의사 이시종씨가 특별포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근로자건강관리에 헌신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협회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 협회에서는 부상으로 김도천씨

에게 87년4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한일 학술집담회 참가비용 제공, 이시종씨에게는 협회장 금일봉, 우수직원에게는 벽시계 1점씩 증정하였다.

○직원포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 환경측정기사 노만호·부산지사 : 건강관리과장 천운원·대구경북지부 : 경리 권미형·충남지부 : 운전기사 전완구·전남지부 : 관리과장 이귀·경남지부 : 건강진단계장 이용만·동해센타 : 측정분석계장 김세동

일본 산재예방 관련시찰단, 협회 내방

○일본 노동성 위생기준국 기획관 伊藤眞,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상임이사(겸 광고부장) 梶谷浩, TDK생산기술부장 伊藤哲雄등 일행3명이 주한일본대사관 후루다 勞務宮의

안내로 지난 11.20 당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현황을 청취한 후 조규상 회장과 한국의 산업보건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방한한 일행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새

로 결성에 정인 아시아산업안전보건기구에 가입하여 줄 것을 제청하면서 일본과의 보다 밀접한 교류를 요망하였다. 한편 조규상 회장은 선진국 일본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재예방을 위해 기술 및 장비부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

력히 피력하면서 그동안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동 일행은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산업보건기술협력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귀국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부산지부센타, 회관 마련

○협회 부산지부(지부장 : 김돈균)는 부산시 패법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대지120평, 건물340평)을 지난 11월 4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건물의 위치는 사상공단에 인접하고 있어 집단보건관리 추진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평가될 뿐 아니라 지역의 교통중심지에

위치하여 앞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87.1.15일 현소재지 부산동래에서 신규 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금번 부산지부 회관 매입으로 전국 7개센타중 마산,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자체회관을 갖게 되었다.

사무국장회의 개최

○86년도 제4차 사무국장회의가 12.6~12.7 2일간에 걸쳐 대전지부에서 최병수 업무이사 주체로 개최되었다.

○지부별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실적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한 금번 회의는 86년도 연간 실적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84년도 중앙집중관리제 실시이후 3년간의 운영실태를 종합심

사분석하여 지부별 취약점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최 병수이사는 87년도 기관운영에 대해 철저한 지부실적제 확립과 합리적 운영으로 지부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전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하여줄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협회 근무시간 변경

협회는 동절기 및 비사업기에 따른 근무시간을 변경시키기로 하고 '86.12.1~'87.2.28 까지 종전의 9:00-18:00 근무에서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9:00-17:00 까지 근무한다.